

SK 테크 서밋 2022 참가 등록 시작

SK의 기술이 만들어 가는

더 나은 미래로 초대합니다

**- 오는 11월 8-9일 워커힐 호텔서 개최… 기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 SK 그룹 17개사가 참여해 AI, 반도체, 클라우드 등 총 127개 기술 선보여**

**- SK 내외부 연사 키노트 스피치부터 기술 체험 및 토론 세션 등 다양한 구성**

**- 3년 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에서 다채로운 체험과 네트워킹 기회 제공**

|  |
| --- |
| **엠바고 : 배포 즉시 활용 부탁드립니다.** |

**[2022. 10. 11]**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은 SK그룹의 종합 기술전 'SK 테크 서밋 2022' 참가 등록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등록은 10월 11일부터 관련 웹사이트([www.sktechsummit.com](http://www.sktechsummit.com))에서 가능하다

'SK 테크 서밋'은 SK의 기술 역량을 결집해 기술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는 취지의 기술 컨퍼런스다. 올해 행사는 SK의 기술이 만들어 가는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워커힐 호텔에서 오는 11월 8~9일 양일간 개최된다.

‘SK 테크 서밋 2022’은 SK그룹 17개사가 준비한 AI, 반도체, Auto ML, 메타버스 등 총 10개 분야 127개의 기술에 대한 발표와 전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테크 기업도 발표와 전시에 함께 참여해 대내외 기술 공유와 시너지를 강화한다.

11월 8일 오전 환영사를 시작으로 SK텔레콤 이종민 미래R&D 담당과 SK㈜ C&C 차지원 AI/Data 플랫폼그룹장이 ‘AI 기술이 만들어 가는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 ‘누구나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의 김기완 솔루션즈 아키텍트 총괄이 아마존이 지향하는 기술과 미래 전략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또한 구글 기술 부서의 에스티 쳉(Estee Cheng) 지속가능성 총괄 임원(gTech Sustainability Managing Director)이 구글의 기술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한다.

'SK테크 서밋 2022' 참석자는 ▲SK텔레콤의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Green AI 기술 ▲SK(주) C&C의 AI, Data, Cloud 중심 디지털 전환 혁신 사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연구성과를 직접 살펴보고 이에 대한 토론에도 참여할 수 있다.

더불어 올해는 글로벌 테크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해 AI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주제로 발표 세션을 진행하고, 깃허브(Github)는 협업과 DevOps(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를 주제로 참여해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3년 만에 오프라인 중심으로 시행되는만큼 다양한 체험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현장 전시 부스에서는 UAM VR과 메타버스 등의 체험이 가능하며, 현장에 오지 못하더라도 라이브 스트리밍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전시부스 투어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개발자 간 모임부터 대학생 현장 멘토링과 채용부스까지 다채로운 네트워킹의 장이 열릴 예정이다.

안정환 SK텔레콤 기업문화담당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SK 그룹의 ICT 기술을 활발히 공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관련문의 : SK텔레콤 PR실 전략PR팀 윤태구 매니저(02-6100-3816)**

|  |
| --- |
| **※ 사진설명**  SK텔레콤은 SK그룹의 종합 기술전 'SK 테크 서밋 2022' 참가 등록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참가 신청 후 참석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행사 참여는 무료다. |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끝>**